제7장 | 음의 첨가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솜:니불] 홑-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삯-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꼰닙]
내복-약[내:봉냑]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캥녈차]
늑막-염[능망념] 콩-엿[콩녇] 담-요[담: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엄뇽] 식용-유[시굥뉴]
백분-율[백뿐뉼] 밤-윷[밤:뉻]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검열[검:녈/거:멸] 욜랑-욜랑[욜랑뇰랑/욜랑욜랑]
금융[금늉/그뮹]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릴] 솔-잎[솔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렫]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옷 입다[온닙따]	서른여섯[서른녀섣]
3 연대[삼년대]	먹은 엿[머근녇]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섣]	1 연대[일련대]
먹을 엿[머글렫]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쩔]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이 조항은 'ㄴ'이 첨가되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ㄴ'이 첨가되는 조건은 두 가지이다. 우선 문법적 측면에서 보면 뒷말이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용'과 같이 접미사 '-용'이 결합된 경우에도 'ㄴ'이 첨가되지만 이때의 '-용'은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 다음으로 소리의 측면에서 보면 앞말은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은 단모음 '이' 또는 이중 모음 '야, 여, 요, 유'로 시작해야 한다. 이때 첨가되는 'ㄴ'은 뒷말의 첫소리에 놓인다.

그런데 실제로 'ㄴ'이 첨가되는 조건은 이보다 좀 더 다양하다. 문법적 측면에서는 [붙임 2]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복합어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ㄴ'이 첨가된다. 또한 소리의 측면에서는 이중 모음의 종류가 '야, 여, 요, 유'로 국한되지 않고 '얘, 예'와 같이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모든 이중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된다. 그래서 '슬픈 얘기[슬픈냬기], 먼 옛날[먼:녠날]' 등에서도 'ㄴ'이 첨가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소리의 측면에서는 'ㄴ'의 첨가가 단모음 '이'와 반모음 'ㅣ[j]' 앞에서 일어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국어에서는 구개음화, 'ㅣ' 역행 동화 등 여러 현상에서 단모음 'ㅣ'와 반모음 'ㅣ[j]'가 발음 조건으로 함께 제시되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붙임 1]에서 언급했듯이 앞말의 마지막 자음이 'ㄹ'일 경우에는 첨가된 'ㄴ'이 실제로는 [ㄹ]로 발음된다. 이것은 'ㄴ'이 첨가된 후 앞선 'ㄹ'에 동화가 일어난 결과이

다. 이러한 자음 동화는 제20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ㄴ'의 첨가는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만'을 통해 '이죽이죽'과 같이 'ㄴ'이 첨가되는 것과 첨가되지 않는 것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송별연, 등용문'과 같이 'ㄴ'이 첨가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에 제시되지 않은 단어 중에도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문법적 성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접두사가 결합한 경우: 몰인정, 불일치 등
- 합성어의 경우: 독약, 그림일기 등
- 구 구성의 경우: 작품 이름, 아침 인사 등
- 한자 계열의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 한국인, 경축일 등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냇가[내:까/낻:까]	샛길[새:낄/샏:낄]
빨랫돌[빨래똘/빨랟똘]	콧등[코뜽/콛뜽]
깃발[기빨/긷빨]	대팻밥[대:패빱/대:팯빱]
햇살[해쌀/핻쌀]	뱃속[배쏙/밷쏙]
뱃전[배쩐/밷쩐]	고갯짓[고개찓/고갣찓]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콛날 → 콘날]	아랫니[아랟니 → 아랜니]
툇마루[퇻:마루 → 퇸:마루]	뱃머리[밷머리 → 밴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갣닏 → 베갠닏]　　깻잎[깯닙 → 깬닙]

나뭇잎[나묻닙 → 나문닙]　　도리깻열[도리깯녈 → 도리깬녈]

뒷윷[뒫:뉻 → 뒨:뉻]

이 조항은 사이시옷이 표기된 단어의 발음에 대한 규정이다. 첨가된 자음의 종류에 따라 3개의 하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 조항은 'ㄷ'이 첨가된 경우, 'ㄴ'이 첨가된 경우, 'ㄴㄴ'이 첨가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ㄷ'이 첨가되는 경우로 사이시옷이 [ㄷ]으로 발음된 것이다.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은 뒷말의 첫소리가 경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사이시옷은 [ㄷ]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되, 발음하지 않는 쪽을 원칙으로 삼고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즉 '깃발'의 경우 [기빨]이 원칙이고 [긷빨]도 허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쪽을 원칙으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제30항)에 따르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합성어를 이루는 뒷말의 첫소리가 경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이지 음이 첨가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한글 맞춤법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형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현실 발음에서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지 않는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형태를 원칙으로 삼았다.

2. 'ㄴ'이 첨가되는 경우로 사이시옷이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바뀐 후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된 결과이다. 표면적으로는 'ㄴ'이 첨가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이시옷이 [ㄷ]으로 발음되는 것과 관련되므로 앞선 1과 통하는 바가 있다. 단, 1에서는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했음에 비해 이 조항의 경

우 사이시옷을 반드시 [ㄷ]으로 발음해야만 'ㄴ'으로 동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ㄴㄴ'이 첨가되는 경우로 앞선 1이나 2와 달리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 'ㅣ[j]'로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첨가된 'ㄴㄴ'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나오게 된다. '베갯잇[베갣닏→베갠닏]'에서 보듯이 사이시옷이 먼저 첨가된 후 'ㄴ'이 첨가되고(표준 발음법 제29항 참조) 다시 자음 동화를 거친 결과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ㄴㄴ'이 첨가되는 사례에는 제시된 것 이외에 '훗일[훈:닐], 뒷일[뒨:닐]'과 같은 예가 있다.

더 알아보기

- **'ㄴ' 첨가 현상 보충 설명**

'베갯잇'과 같이 표면상 두 개의 'ㄴ'이 첨가되는 것에 대해 사이시옷이 먼저 첨가된 후 'ㄴ'이 첨가된다고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사이시옷이 첨가되기 위해서는 뒤에 오는 말이 경음으로 바뀔 수 있는 평음으로 시작하거나, 비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ㄴㄴ'이 첨가되는 예들은 뒷말이 '이'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사이시옷이 첨가될 수 없으며 사이시옷이 첨가되지 못하면 'ㄴ'도 첨가될 수 없다.

'ㄴㄴ'이 첨가되는 예들 중 '깻잎, 나뭇잎'은 '잎'이 예전에 '닢'이었으므로 실제로는 2의 'ㄴ' 첨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즉 역사적으로 '깻닢, 나뭇닢'에서 '[깬닙], [나문닙]'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잎'이 결합되지 않은 '베갯잇, 도리깻열, 뒷윷' 등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ㄴㄴ'이 첨가되었는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